

임실군, 반려동물 성지로 도약한다

의생명바이오산업 발전 ‘맞손’

전담 부서 ‘반려산업과’ 신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인프라 확충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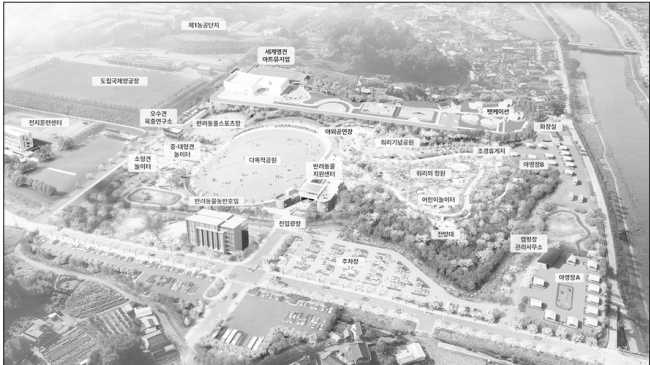
오수 의견 설화로 유명한 고장인 임실군이 대한민국 반려동물 성지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군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오수 의견 설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반려동물 산업을 집약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인 반려산업과를 지난 1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반려산업과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임실군의 핵심 동력 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와 반려 문화 확산, 반려 산업 연관 교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다.

주요 업무는 반려동물 산업육성과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반려 관광 콘텐츠 운영, 동물보호 및 복지 강화 등이다.

반려동물 문화공간인 오수의견관광지 일원에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오수의견캠핑장, 반려동물지원센터(오수 반려누리) 운영, 반려동물 특화축제(임실N펫스타), 국제도그쇼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



세계명견테마랜드 조감도

이다.

실제 군은 현재 18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트뮤지엄과 펫캐이션, 산책길과 야간경관 시설을 갖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세계 100여 개국의 유명 견종을 직접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센터 조성, 체류형 반려 동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호텔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그리고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완성,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반려산업과 신설은 임실군이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군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반려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관광객 혜택·지역경제 상생 도모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광플랫폼 쿠폰북' 출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역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관광플랫폼 쿠폰북'을 선보였다.

이번 쿠폰북은 관광 소비를 보다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지역 기반 상생 모델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재단은 순창발효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쿠폰북을 배포하고 있으며, 쿠폰북에는 숙박업소, 음식점, 체험시설, 카페 등 총 28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업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쿠폰북을 소지한 관광객은 각 업소에서 할인, 증정, 체험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 입장에서 실질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춘향 씨감자' 시설감자 농업인에 공급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해발 450m 내외의 고랭지 지역에서 규격에 맞게 생산한 '춘향 씨감자' (규격서) 160톤을 9월부터 10월까지 시설감자 농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급종 춘향 씨감자는 원종 감자를 3월 정식한 뒤 수분공급과 시기별 약

제를 사용하여, 단계별 바이러스 감염 여부, 기타 병해충 감염 등 강원도 보급종과 동일한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포장에 통망사를 설치하고 격리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종자 감사를 2회에 걸쳐 수행하는 믿을 수 있는 우량종자이다.

남원시는 운봉읍의 춘향 씨감자 저온유리온센터 선별장에서 크기, 모양, 무게 등을 기준으로 선별, 90일의 휴면기를 충분히 거친 뒤 고품질 씨감자를 오는 9월~10월에 시설감자 농업인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원광대 의과대학,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산업연구원)은 최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과 지역 의생명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과와 인재 양성 및 의생명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와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의생명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주제 개발, 우수 연구 인력의 교류 및 상호 교육, 우수 인력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

며, 이를 통해 의생명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 적용과 인재 양성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생명바이오산업의 주요 주체들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연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우수 인재 양성과 바이오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의생명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앙파愛 빠지다! 특가판매전’ 열어

남원시는 10일, 시청 광장에서 남원 앙파 소비 촉진을 위한 ‘앙파愛 빠지다! 특가판매전’을 열었다.

남원시 앙파 재배 농가는 총 219 농가로 118.2헥타르의 면적에서 앙파를 생산 중이며, 산동(40.5ha), 이백(26.2ha) 등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행사는 최근 앙파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과 농가의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남원시와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중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앙파를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 형태로 진행되었다.



앞서 시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품질 좋은 앙파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직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9일, 시 농업인상생플랫폼에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여행 프로그램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와 사남면인 남원 활력만들기센터에서는 2년간 국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원의 농촌관광 브랜드 ‘누비GO’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숙박형 농촌관광을 벗어나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농어촌민박, 6차산업 경영체, 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 농번기일에도 30여



명이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동시 진행, 그 결과 8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이해, 사업 추진현황 및 비전, 지원내용 및 협업방안 순으로 진행,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선발된 농촌관광 경영체에게는 △상품기획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역량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 개최

순창군은 10일 ‘2025년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조사관 13명과 한국소비자협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 상담관 4명이 참여해 총 17개 분야의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는 생활법률, 재정세무, 산업농림, 복지노동 등 여러 분야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일부 민원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된 고충으로, 현장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안내받기도 했다.

또한 접수된 민원 중 일부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거나 후속 조치로 연계되어, 신속한 대응이 돋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남원소방서는 지난 9일, 남원 공설시장 일원에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로만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등이다.

대응예방과 최승범 구급팀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신속대처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체를 통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